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특성

정 현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강사

요약

이 연구는 러시아의 역사와 복식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최근 패션계에 미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을 통찰해보고자 하였다. 고대 러시아,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로 구분된 러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성된 러시아의 복식문화에는 동슬라브 민족의 영향, 러시아 정교의 종교적 영향, 18세기 서구화 정책의 영향,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적 영향을 반영한 2000년 이후 현대 패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러시아풍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러시아인 포클로어는 러시아 농민을 중심으로 계승된 동슬라브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아이템과 장신구, 공예적 디테일을 차용한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둘째, 러시아인 오폴렌스는 러시아 정교의 국교화 및 서구화 정책에 따라 화려한 직물, 보석, 금자수를 활용한 러시아 복식의 특징적 요소에 의해 표현되고 있었다. 셋째, 러시아인 아방가르드는 혁명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나 디자이너에 의해 추구되던 기하학적 형태와 단순한 색채를 차용한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넷째, 러시아인 밀리터리는 자유분방한 호전적 기질의 카자크와 근현대 러시아 혁명 및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반영한 소비에트 붉은 군대의 제복 요소를 차용한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특성에는 보헤미안적인 동슬라브 민족의 판타지와 향수에 대한 동경, 타문화와의 혼성에 따른 문화적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러시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변천에 대한 다중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조형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의 미적 표현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제어 : 패션디자인, 러시아, 동슬라브, 카자크, 소비에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예로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된 국가의 복식이나 패션은 전 세계 패션의 유행을 주도해 왔으며, 멀티미디어 사회인 오늘날에는 잦은 미디어의 노출과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3년 1월, 영국의 미래예측기관 Which?에서 현재 대두되는 트렌드를 연구하여 향후 우리의 삶과 사회,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상한 「Consumers in 2030」(2013)¹⁾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7년 이상 세계 경제의 중심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와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러시아는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 침체와 사회불안을 경험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대 이후 국제유가 상승, 통화안정, 기업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G8 정상회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는 러시아의 환경과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 노출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다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패션계에서 러시아는 이미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 많은 전쟁과 대립, 귀족문화의 특성은 독자성과 고급스러움 같은 러시아 복식의 다양한 면모를 만들어 냈고, 이는 20세기 샤넬(Chanel),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 등의 작품에 영감이 되기도 했다. 나아가 2001년 이후 시작된 러시아 패션 위크(Russian Fashion Week)의 활성화에 힘입어 러시아는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해외 디자이너의 타깃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 모

델, 디자이너, 에디터의 패션 블로그 활동은 러시아 패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러시아 복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박윤정 2009²⁾; 박윤정, 양숙희, 2005³⁾; 손호영, 간호섭, 2011⁴⁾; 오선희, 2001⁵⁾; 한순자, 1996⁶⁾)는 제정 러시아의 복식 고찰,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의 의상디자인 활동이나 예술 의상, 현대 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특히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20세기 소비에트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연구(이다경, 2013)⁷⁾가 수행되면서 연구 주제와 범위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역사와 복식문화의 특성에서 비롯된 러시아적 요소를 러시아풍으로 정의하고,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패션계에 미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을 통찰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연구의 세부적 목표는 첫째, 러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러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역사적 배경을 통시적,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러시아 역사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 복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러시아풍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한다. 셋째, 러시아풍이 반영된 현대 패션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표현특성을 고찰한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화적 요소가 타문화의 디자이너들에게 차용되는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전통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재료로 활용되는 방법을 모색하여 새로운 창작에 영감을 제공하고, 이때 연구대상이 현재까지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러시아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러시아의 역사 및 복식의 특성은 선행연구, 관련 전문서적을 통한 문헌고찰을 시도하였으며,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표현특성은 국내외 패션 컬렉션 사진을 사용한 실증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즉,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러시아풍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사용, 스타일닷컴(style.com), 엘르닷컴(elle.com), 삼성디자인넷(samsungdesign.net)을 비롯한 각종 패션전문사이트 검색을 통해 러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라고 언급된 컬렉션만을 선정함으로써 연구대상의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연구범위로는 러시아 복식의 변화를 역사적 흐름과 함께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 및 러시아 복식의 특성은 고대 러시아의 설립에서부터 20세기말 러시아 연방으로 해체되기 이전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포함하는 소비에트 러시아까지로 설정하였다. 실증적 분석 대상인 현대 패션은 2000년대 이후 발표된 국내외 여성복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하되, 디자이너의 문화적 배경이 디자인에 미치는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러시아 디자이너의 작품은 배제하였다. 이에 2001년 S/S부터 2014년 F/W 기간 중 총 49개 컬렉션에서 428개의 작품이 수집, 분석되었다.

II.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

1. 고대 러시아(Old Russia)

고대 러시아는 키예프-루시 대공국이 설립된 9세기 말부터 몽골 타타르 지배기를 거쳐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발전한 16세기까지의 시기이다.

5-6세기부터 시작된 슬라브족의 이동 중 동쪽으

로 이동한 동슬라브족, 즉 루시(russi)인은 7세기경 러시아 평야의 남부에 산재하여 정착하였고, 882년 올레그(Oleg, 재위: 879-912)가 세력의 중심지인 노브고로드와 키예프를 통일함으로써 키예프-루시 대공국이 탄생하였다. 이후 블라디미르 공(Vladimir, 재위: 978-1015)은 신생국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988년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수용하고 비잔틴 문화를 흡수하였다.⁸⁾

1240년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이 키예프를 장악하고 몽골자치국을 설립하였다. 킵차크칸국(Kipchak Khanate)의 칸은 루시의 공후들을 승인하고 통치권을 허가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세금과 뇌물, 충성을 맹세 받으며 러시아인을 종속적인 신분으로 전락시켰다.⁹⁾

한편, 13세기 중엽까지 블라디미르 공국에 속해 있던 모스크바는 1263년 모스크바 공국으로 독립 이후, 킵차크칸국이 쇠약해져가자 몽골 타타르에 대한 민족적 항거의 중심지가 되었다.¹⁰⁾ 이반3세(Ivan III, 재위: 1462-1505)는 루시 땅의 대부분을 통합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켰고, 1472년 비잔틴 공주와 결혼하여 스스로 비잔틴 황제의 계승자임과 그리스 정교의 수장임을 참칭하며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선언하였다. 이반 4세(Ivan IV, 재위: 1547-1582)는 1547년 자신을 차르(Tsar)이자 전 러시아인의 전제군주라고 칭하며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개혁을 실시하였고, 카자크(Cossack)¹¹⁾를 이용해 시베리아 원정을 시도,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 대평원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¹²⁾

고대 러시아는 러시아의 전통문화와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기틀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민족적 근간을 이루는 동슬라브인의 민속문화와 러시아 정교의 신앙체계가 융합된 러시아 전통문화의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240년간 지속된 몽골타타르 지배는 카프탄형 의복, 수염, 여성의 사회활동 금지와 가내은둔 생활의 조

장 등의 풍습과 생활관습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정교는 세속군주에 예속 및 권위를 지위함에 따라 전제주의를 태동케 한 배경이 되었으며, 몽골제국의 절대주의와 군국주의는 제정 러시아뿐 아니라 20세기 러시아에도 그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된다.

2. 제정 러시아(Imperial Russia)

이반 4세 사망 이후 러시아는 스웨덴과 폴란드 등의 침략을 받으며 혼란기를 맞이하였으나, 1613년 소집된 국민회의에서 미하일 로마노프(Mikhail Romanov, 재위: 1613-1645)가 새로운 차르로 선출됨으로써 로마노프 왕조의 제정 러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제정 러시아는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전제군주 시대를 맞이하였다.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 재위: 1682-1725)는 서구화 정책, 교회개혁,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로의 수도 천도 등을 통해 러시아를 강력한 군주통치 국가로 이끌었다.

표트르 대제 사후 오랜 궁정 혼란기를 거친 후 즉위한 예카테리나 대제(Ekaterina II, 재위: 1762-1796)는 영토 확장과 봉건제도의 강화로 제정 러시아를 명실상부한 대국으로 발전시켰다.¹³⁾

19세기 초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통해 배운 서구 자유주의 사상은 러시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다. 1840년대 인텔리겐차로 불리는 지식인은 러시아 전통에 기반을 두는 슬라브주의와 서구를 모델로 삼는 서구화주의로 나뉘어 러시아의 개혁에 대한 이념적 논쟁을 일으켰으며, 1860년대 알렉산드르 2세(Alexandro II, 재위: 1855-1881)의 농노해방령에 반대하며 혁명을 부르짖는 진보적 투쟁을 이어나갔다. 1905년에서 1907년까지 러시아 전역에서의 노동자 시위로 촉발된 제1차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러시아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Nicolas II, 재위: 1894-1917)

의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¹⁴⁾

제정 러시아는 사회, 문화적으로 서유럽의 관행이 도입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권력이 강화된 시기이자, 러시아 혁명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시작된 시기로 평가받는다. 17세기 말까지도 고대 러시아의 사회구조가 유지되었지만, 18세기 표트르 대제의 강력한 서구화 정책은 유럽의 선진과학기술과 세속학교제도의 도입, 귀족의 복식개혁¹⁵⁾을 통한 학문발달 및 생활문화개혁을 초래하였고, 예카테리나 대제의 귀족중심정치는 봉건제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식인을 중심으로 봉기된 19세기 정치적 소용돌이와는 달리 레프 톨스토이(Lev Tolstoy),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y), 표트르 차이코프스키(Pyotr Tchaikovsky) 등 뛰어난 인물들이 문학 및 음악 분야에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로 간주된다.

3. 소비에트 러시아(Soviet Russia)

20세기 초 전제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시위는 1917년 2월 혁명으로 전개되어 결국 로마노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17년 10월, 제2차 러시아 혁명으로 임시정부를 장악한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재임: 1917-1924)은 1922년 소련,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탄생시켰다.¹⁶⁾

1924년 재임한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 재임: 1924-1953)은 부르주아적 구지식인과 문화에 대한 공격으로 전제주의의 극치를 보이며 스탈린주의 혁명을 이끌어 나갔다.¹⁷⁾ 그러나 스탈린 사후 일어난 스탈린 격하운동,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의 경제개혁 등을 거치면서 1985년 당서기장으로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재임: 1985-1991)는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소련사회를 급격히 변화시켜 1991년 러시아 연방의 성립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맞이하였다.

비록 소비에트 러시아는 급변하는 20세기 국제 정세를 반영하듯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과정을 겪은 시기로 평가된다. 수도를 다시 모스크바로 옮기고 봉건적 토지소유 구조를 해체하면서 경제성장과 혁명의 평등사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레닌과는 달리 스탈린은 반부르주와적 농업집단화, 공업화 정책을 펼치며 급격한 공산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련은 비록 74년이라는 짧은 기간 존속하였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승전 이후 서구 자유주의 국가와의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세계 최강국의 하나로 국제 정세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III. 러시아 복식의 특성

1. 동슬라브 민속복식의 영향

러시아의 고유복식은 러시아의 민족적 근간이 되는 동슬라브인의 민속복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긴소매가 달린 직선재단의 폭넓은 의복과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겹쳐 입는 동슬라브 민속복식의 기본 재단법과 착용방식은 18세기 초 포트르 대제의 개혁정책 이전까지 전 러시아인의 전통복식으로 착용되었고, 공업발달과 도시패션, 격변하는 정치적 요인이 농민의 생활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도 농민복식을 중심으로 단일한 특성이 유지되었다.

남성의 전형적 복식은 카사바로트카(kosovorotka)로 알려진 튜닉형 셔츠<그림 1>와 풍성한 마지, 그 위에 긴 소매가 달린 오카벤(okhoben), 싱글 브레스트의 카프탄(kaftan)이나 슈바(shuba)를 착용하는 것이다. 특히 모피코트인 슈바는 15-17세기 남녀 다양한 계층에서 널리 착용된 아이템으로 소재나 장식은 착용자의 부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상류층에서는 새틴 브로케이드, 벨벳과 같은 고가의

원단으로 모피를 덮어 착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였다.¹⁸⁾

여성복식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 북부와 중부지역에서는 스목형태의 블라우스인 루바시카(rubashka)와 점퍼스커트형 사라판(sarafan)이 기본 스타일인 반면, 남부 흑토지대에서는 고풍스럽고 소박한 형태의 스커트인 포네바(poneva)를 선호하였다.

루바시카는 리넨 소재의 긴 소매 디자인으로 고대 러시아 복식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색상이 들어간 견사, 금사, 걸룬, 스펅글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의 자수를 놓거나 네크라인, 소매, 도련을 따라 가장자리 장식이 첨가되기도 했다. 사라판은 측면에 무가 삽입된 A라인 형태로, 어깨에서 끈으로 지지되고 앞중심을 따라 단추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무명이나 화려한 색채의 러시아산 원단을 사용한 사라판이 농민여성의 일상복으로 착용된 반면, 실크 사라판은 고가의 재료와 트리밍으로 장식되어 부유한 농민과 낮은 중산층의 도시거주자, 상인 부인의 축제복으로 착용되었다<그림 2>. 사라판 위에는 도시여성의 복장에서 영향을 받은 두세그레아(dushegreya)라 불리는 보온용 재킷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남부 지역에서 사라판을 대신하는 포네바는 축제복으로는 다채로운 색상의 자수와 밝은 스트라이프 장식이 있는 스타일, 일상복으로는 빨간색 두터운 면직물에 단순한 트리밍이 있는 디자인을 즐겨 착용했다<그림 3>. 루바시카와 포네바 위에는 밝은 색상의 장식적 패턴이 가미된 앞치마를 착용하기도 했다.¹⁹⁾

장신구는 민속복식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동슬라브인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된 머리장신구는 러시아 복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신부의 혼수품으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코코쉬니크(kokoshnik)는 비록 지역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지녔을지라도 진주나 금자수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그림



<그림 1>
카사바르트카, 17C
(출처: 'Russian Elegance',
2011, p.17)



<그림 2>
루바시카와 사라판, 18C후반
(출처: 'Russian Elegance',
2011, p.48)



<그림 3>
루바시카와 포네바, 19C말
(출처: 'Russian Elegance',
2011, p.100)



<그림 4>
코코쉬니크, 18C말
(출처: 'Russian Elegance',
2011, p.52)

4>. 러시아에서 기혼여성은 낮은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서는 안 되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여성이 착용하던 머리장신구의 형태는 착용자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기능이 지녔다.²⁰⁾ 코코쉬니크 이외에도 여성용 사각형 머릿수건인 플라톡(platok), 러시아 변방에서 군사업무를 담당하며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기 위해 사용하던 카자크인의 원통형 털모자 파파카(papakha)와 우산카(ushanka)로도 불리는 귀마개 달린 샤프카(shapka) 역시 러시아 민속복식의 주된 요소였다.²¹⁾

이와 같은 러시아 민속복식에는 동슬라브인의 타고난 취향과 감수성, 삶의 기쁨과 긍정주의를 표현하는 문양과 색채들이 즐겨 사용되었다. 농민복에 사용된 빨간색은 선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크고 밝은 꽃다발과 산딸기, 새, 유니콘 문양은 전통적인 러시아 민속예술에서 추구하는 선, 빛, 봄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농업과 관련하여 자연의 힘과 토지의 비옥함을 기원하는 슬라브인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악마에 대항하는 부적으로서의 의복 가장자리 장식에는 고대 슬라브인의 민간 신앙이 반영되어 있었다.

2. 러시아 정교의 종교적 영향

러시아 정교는 신앙으로서의 종교적 교리나 이

론보다 본질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였고, 국교인 동시에 예술문화와 결합된 종합예술로 기능²²⁾하면서 복식을 포함한 러시아 예술의 미학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988년 키예프-루시의 블라디미르 1세가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 정교를 수용하여 러시아 정교로 국교회함에 따라 법률, 예식, 의전 및 문학, 예술, 풍습, 관습에서 직접적으로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종교 외적으로도 비잔틴 문명이 러시아에서 일반화되었다. 키예프의 상인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상, 성화, 실크, 장신구를, 주변 국가로부터 보석, 실크 새틴 직물을 수입하여²³⁾ 모직물과 리넨 직물을 주로 사용하던 복식문화에 화려함을 부여하게 되었다. 파르차(parcha)라 불리는 실크 브로케이드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처음 소개되어 러시아의 전통이 된 것으로 18-19세기에는 자국 생산이 이루어졌고,²⁴⁾ 복식과 수공업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쉬티이(shitye), 즉 금자수 역시 그리스 정교의 도입에 따라 러시아에 들어와 넓게 퍼진 이후 수세기 동안 융성하였다.²⁵⁾ <그림 5>는 18세기 러시아 정교회에서 착용하던 서플리스의 디테일로, 금속 씨퀀 장식 바탕에 진주문양의 가장자리를 따라 금은사로 윤곽선을 강조하였고 금세공된 보석들이 부착되어 화려함이 부각될 뿐 아니라 교회의 촛불에 반사됨으로써 종교적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5>
서플리스(부분), 18C
(출처: 『Russian Elegance』,
2011, p.39)



<그림 6>
쌍두 독수리문양의 대관식
가운, 1896
(출처: <http://www.vam.ac.uk>)



<그림 7>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 1729
(출처: <http://www.vam.ac.uk>)



<그림 8>
러시아 궁정시녀의 복식, 1838
(출처: <http://www.wikigallery.org>)

한편, 15세기 후반 이반 3세가 비잔티움의 후계자를 자칭하고 비잔티움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가 러시아 황실의 문장으로 채택되면서 황실 예복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6>은 1896년 황후 마리아 페도로브나(Empress Maria Fedorovna)의 대관식 가운으로 비잔티움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가 자수되어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교를 통한 비잔틴 문화의 수용은 동슬라브인의 소박한 민속복식에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부여하며 러시아 전통복식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공헌하였다. 특히 금자수는 고대 러시아에서 은둔된 생활이 요구되었던 러시아 여성에게 그들의 창의성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재능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으며,²⁶⁾ 16-17세기 금세공 제조업의 성행 및 장식 디자인의 다양함, 완벽한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 사회와 문화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서구화 정책의 영향

1701년 12월, 표트르 대제는 성직자와 농민을 제외하고 무역을 위해 도시로 온 농노, 모든 계층의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는 모스크바의 모든 거주자는 유럽풍 드레스를 착용하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남성들은 프랑스나 색슨 스타일 코트에

소매 달린 베스트, 반바지, 부츠, 구두, 독일식 모자를, 여성 역시 유럽식 드레스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러시아의 전통적 드레스나 카프탄, 슈바, 바지와 부츠의 착용 및 이러한 제품의 생산까지 금지시켰다. 이에 유럽 패션은 표트르 대제의 임기 말까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상복에도 확고하게 차용되었고, 18세기 궁정은 최신 패션과 액세서리의 착용에 따른 부와 특권의 과시 장소로 변모하였다.²⁷⁾ 표트르 대제의 취임기간 동안 러시아에 들어온 외국의 패션하우스들은 19세기 많은 공장과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의 의복제조업이 활성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²⁸⁾ <그림 7>은 표트르 2세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코트와 웨이스트 코트로 러시아 궁정이 유럽 스타일 복식의 수용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1782년 예카테리나 대제는 궁정복식의 단일화를 통해 궁정인의 특권을 다소 감소시켜 보고자 했다. 남성의 궁정복은 유럽 스타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 여성 궁정복은 예외적으로 유럽의 최신 패션에 디테일이나 장식에 있어 러시아적 요소를 융합한 디자인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궁정시녀들은 러시아적 긴 소매가 달린 서구식 드레스에 코코슈니크를 착용하도록 요구되었고, 소위 러시아 궁정 드레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의복은 1917년 로마노프 왕조가 끝날 때까지 궁정의 모든 여

성에 의해 착용되었다<그림 8>.²⁹⁾

이와 같이 18세기 서구화 정책에서 비롯된 복식개혁은 러시아 복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포트르 대제의 복식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18세기 이후 러시아 복식을 전통적인 러시아 복식과 서구 유럽 스타일의 복식으로 분류시켜 놓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농노해방과 함께 농민들까지 새로운 정제성 정립을 위해 유럽 복식을 수용, 민속복식과 절충하여 착용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적 개혁의 일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예카테리나 대제의 여성 궁정복식 개혁은 서구 스타일에 러시아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서구의 기술과 문화에 러시아의 힘과 야망이 융합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재현³⁰⁾하고자 했다. 이는 포트르 대제에 의한 러시아 전통 사회와 문화의 붕괴를 치유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되며, 이때 그 대상이 여성 복식이었다는 점은 여성의 몸이 국가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4. 러시아 혁명사상의 영향

1917년 레닌이 주도한 제2차 러시아 혁명과 1930년대 소위 제3차 러시아 혁명이라 불리는 스탈린주의 혁명은 러시아 복식에 상반된 영향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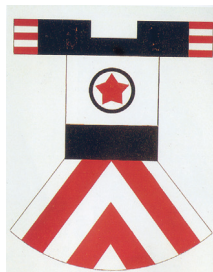
20세기 초 위생적, 도덕적 측면에서 당시 유행

패션에 이의를 제기하던 복식개혁가들은 러시아 혁명 이후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들은 패션은 필수적으로 부르주아적 현상이고, 그 어떤 다른 일상품보다 신분의 차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패션을 생산하는 사회계층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³¹⁾ 따라서 혁명적 삶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의복 창조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러한 의복은 혁명정신이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계층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독특한 형태로 인체를 표준화하려는 유토피아적 사고를 반영하였다.

1922년에서 1925년 사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인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Tatlin), 알렉산드르 로드첸고(Alexandre Rodchenko), 바바라 스테파노바(Varvara Stepanova)와 리우보브 포포바(Liubov Popova)는 색과 형태에 관련된 회화적 경험을 활용하여 일상 목적에 부합되는 실체적이며 단순화된 형태와 기하학적 문양,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³²⁾ 이들이 제안한 의복은 주로 기능성이 요구되는 작업복, 특수복, 스포츠복 등의 유니폼이었다. 알렉산드르 로드첸코가 제안한 예술가를 위한 작업복은 미술 도구를 담을 수 있도록 큰 사각 포켓이 부착된 오버롤 스타일로, 대량생산을 고려한 재봉틀의 사용으로 명확한 봉제선이 부각되었다<그림 9>. 바바라



<그림 9>
구성주의 의상을 착용한
로드첸코, 1922
(출처: 'Against Fashion',
2004, p.52)



<그림 10>
스테파노바의 스포츠복 프로젝트, 1924
(출처: 'Against Fashion',
2004, p.14 of color plate)



<그림 11>
소비에트 붉은 군대, 1940년대
(출처: <http://en.ria.ru>)

스테파노바의 스포츠복은 착용과 활동이 간편한 단순한 기하학적 재단과 색채에 의한 정확한 면분할, 소비에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별을 삽입하여 혁명사상을 강하게 표출하고자 했다<그림 10>.

1930년대 후반, 레닌의 순수한 사회주의가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통치체제로 바뀌면서 평등주의 가치를 추구하던 의복 개혁과는 달리 일부 사회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치스럽고 호화스

러운 패션이 다시 유행³³⁾하였고, 1917년 창설된 붉은 군대의 제복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군대 창설 초기 볼셰비키와 대항하며 제정 러시아를 지원하던 카자크를 연상시키고, 계층의 차이를 상징하며 심한 이데올로기적 함축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파코파와 견장은 스탈린의 관료적 사회주의 정책 이후 붉은 군대 유니폼에 재도입되었다<그림 11>³⁴⁾ 또한 카키색 밀리터리 재킷을 선호하던 스탈린을 위해 1943년 새롭게 고안된 뽀

<표 1> 러시아 역사적 배경과 러시아 복식의 연관성

시대구분	주요 역사적 배경	러시아 복식에 미친 영향	러시아풍의 구성요소	
고대 러시아	키예프-루시 대공국 (9-13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슬라브인을 민족적 근간으로하는 키예프-루시 대공국 탄생 · 그리스 정교 수용, 러시아 정교로 국교화 · 비잔틴 문화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슬라브 민족복식의 영향 - 긴소매, 직선재단, 겹쳐 입기 · 카자크인의 고유복식 영향 - 추운지역에서의 군사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털모자와 부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sian Folklore -East Slavic -kosovorotka -rubashka -sarafan, poneva -shuba -kokoshnik -platok
	몽골 타타르 통치기 (13-15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킵차크칸국의 키예프-루시 지배, 러시아인의 종속적 신분화 · 모스크바 공국의 세력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슬라브인의 고유신앙과 민속예술의 영향 - 벽사 의미를 지니는 의복장식 - 선, 빛, 붉은 이미지를 반영하는 꽃문양, 빨간색의 사용 	
	모스크바 대공국 (15-16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반3세: 비잔틴 공주와 혼인 후 비잔틴 황제의 계승자, 그리스 정교의 수장임을 참칭,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선언 · 이반4세: 차르로 제위, 전체정치 강화, 카자크를 이용한 시베리아 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교와 비잔틴의 영향 - 실크, 다마스크, 브로케이드의 고급소재, 보석, 금자수의 사용 - 황실문장으로 쌍두독수리 사용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개막 (1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폴란드 침공에 의한 혼란기 이후 로마노프 왕조의 제정 러시아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트르 대제의 복식개혁의 영향 - 농민의 제외한 모든 도시거주자, 귀족을 중심으로 한 우아한 유럽식 패션 착용 - 외국의 패션하우스에 의한 러시아 의복제조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sian Opulence -Russian Orthodox -Russian elegance -parcha -shitye -double headed eagle · Russian Avant-garde -constructivism -suprematism
	계몽전제군주기 (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트르 대제: 서구화 정책, 교회개혁, 페테르부르크로의 수도 천도 · 예카테리나 대제: 귀족중심정치, 봉건제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카테리나 대제의 여성 궁정복식 개혁의 영향 - 최신의 유럽 스타일과 러시아적 요소를 융합한 디자인을 착용 	
	개혁과 혁명기 (19세기 -20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텔리겐차를 중심으로 한 슬라브주의, 서구화주의의 이념적 논쟁 · 노동자 시위로 촉발된 제1차 러시아 혁명의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러시아 혁명 사상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 - 혁명정신이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가치를 표현, 대량생산에 적합한 의복 디자인 -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제한된 색채의 사용, 오버롤 형태 	
소비에트 러시아	임시정부기 (20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러시아 혁명에 따른 로마노프 왕조의 종결 · 레닌에 의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설립: 모스크바로 수도 천도, 경제성장 및 혁명적 평등사상 실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주의 혁명과 전체주의적 통치 체제의 영향 - 일부 사회계층을 위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패션이 유행 - 계급의 상징인 견장, 카자크인의 털모자가 붉은 군대 제복에 재등장 - 스탈린 칼라의 카키색 밀리터리 재킷의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sian Military -Cossack -Red Army -papakha -shapka/ushanka
	스탈린주의 혁명기 (20세기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통치: 반부르주와적 농업정책, 공업화 정책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자유주의 국가와 냉전구도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주의 혁명과 전체주의적 통치 체제의 영향 - 일부 사회계층을 위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패션이 유행 - 계급의 상징인 견장, 카자크인의 털모자가 붉은 군대 제복에 재등장 - 스탈린 칼라의 카키색 밀리터리 재킷의 유행 	
	개혁과 개방기 (20세기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루시초프의 경제개혁 ·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 소련의 해체, 러시아 연방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주의 혁명과 전체주의적 통치 체제의 영향 - 일부 사회계층을 위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패션이 유행 - 계급의 상징인 견장, 카자크인의 털모자가 붉은 군대 제복에 재등장 - 스탈린 칼라의 카키색 밀리터리 재킷의 유행 	

죽한 것의 재킷은 이후 스탈린 칼라로 지칭되면서 소비에트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전반기 러시아 혁명은 복식에도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개입시키면서 실험적, 군사적 이미지로 평가되는 러시아 복식의 한 특성을 형성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러시아 복식의 특성을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짓고, 이를 통해 러시아풍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의 제시는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IV.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표현특성

1. 러시아인 포클로어(Russian Folklore)

러시아 전통복식에서 차지하는 동슬라브 민속복식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농민복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민속복식의 특성은 디자이너의 영감으로 자주 차용되어 왔다. 이미 1922년 샤넬은 러시아 루바시카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발표한 바 있으며³⁵⁾, 1976년 F/W 입생로랑의 『Ballet Russe』 컬렉션 역시 러시아 전통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색상의 소재와 자수기법을 활용한 민속풍 아이템으로 구성되기도 했다.³⁶⁾ 또한 여러 겹 겹쳐 입는 러시아 민속복식의 특징은 마트료시카, 즉 『Russian Doll』을 테마로 한 빅토 앤 롤프(Victor & Rolf)의 1999 F/W 쿠튀르 컬렉션³⁷⁾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동슬라브 민속복식에서 비롯된 아이템, 디테일, 장신구와 문양 등은 21세기 이후의 현대 패션에서도 러시아풍을 표현하는 주된 요소로 즐겨 차용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자수가 들어간 루바시카 블라우스, 점퍼스커트인 사라판, 카프탄형 털코트인 슈바는 러시아인 포클로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장 핵심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008년 F/W 구찌(Gucci) 컬렉션에서는 어깨와 소매에 기하학적 문양과 배색을 사용하여 19세기말 러시아 남부지역 여성의 루바시카의 조형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블라우스를 카자크인의 부츠나 허리띠와 함께 조합함으로써 농민복과 카자크인의 보헤미안적 스타일의 융합을 표현하였다<그림 12>.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2005년 F/W 쿠튀르 컬렉션에서 꽃문양이 들어간 겹감에 모피 안감과 트리밍을 사용한 슈바 코트로 러시아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13>. 특히, 러시아 겨울을 테마로 전개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2009년 F/W 컬렉션에서는 루바시카와 함께 사라판을 응용한 드레스가 화려한 러시아 머리장신구인 코코쉬니크, 플라톡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동유럽의 판타지를 표현하였으며<그림 14>, 2005년 F/W 장 폴 고티에의 쿠튀르 컬렉션에서도 코코쉬니크, 샤프카, 허리끈 등 장식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민속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러시아풍 패션을 연출하였다<그림 15>. 이때 즐겨 사용된 붉은 색상, 화려한 꽃문양 역시 전통적인 러시아 민속예술이 추구하는 선, 빛, 봄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요소들로서, 2005년 F/W 겐조(Kenzo) 컬렉션에서는 붉은 모피 목도리와 함께 꽃문양의 솔 아이템을 활용하여 19세기 러시아 민속공예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그림 16>.

이와 같이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제정 러시아의 서구문화 수용 및 강요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중심으로 유지된 동슬라브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의복 아이템과 장신구, 공예적 디테일을 통해 서정적이면서도 보헤미안적인 러시아인 포클로어의 판타지와 향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러시아인 오픈러스(Russian Opulence)

10세기말 그리스 정교의 러시아 국교화와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은 화려한 비잔



<그림 12>
구찌,
2008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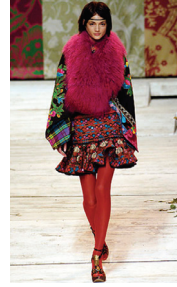
<그림 13>
장 폴 고티에,
2005 F/W Couture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14>
존 갈리아노,
2009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15>
장 폴 고티에,
2005 F/W Couture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16>
겐조,
2005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틴 문화와 서유럽의 고급스러운 귀족문화를 러시아에 전파하였고, 이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 전반에 화려함, 고급스러움, 풍요로움으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였다. 즉, 비잔틴으로부터 수입된 실크, 브로케이드, 각종 보석 및 금자수 기법은 오랜 시간을 거쳐 러시아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후 서유럽의 우아한 요소들이 첨가되면서 러시아만의 독특한 화려함, 즉 러시아인 오프런스를 탄생시켰다.

눈 내리는 러시아 숲을 배경으로 한 2002년 F/W 발망(Balmain)의 쿠튀르 컬렉션에서는 풍부한 모피, 고급스러운 금색 브로케이드와 다마스크, 새틴 직물 및 보석 자수를 사용한 러시아풍의 디자인이 선보였으며<그림 17>, 2009년 샤넬의 Pre-Fall 컬렉션 역시 러시아 정교 사원의 모습이 직조된 금색의 긴 코트와 민속풍 장신구로 비잔틴 문화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화려함을 표현하였다<그림 18>. 2012년 F/W 템퍼리 런던(Temperley London) 컬렉션의 보석, 금색 스팅글로 수놓은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와 파파카의 조화는 2013년 영화로 제작된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서유럽 문화와 전통적 스타일이 융합된 화려함을 드러냈다<그림 19>.

한편, 러시아인 오프런스의 표현특성 중에는 슬라브학에서 논의되는 러시아의 이중신앙³⁸⁾적 요소

역시 반영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슬라브인 고유의 민간 신앙체계와 러시아 정교가 융합된 이중신앙의 흔적은 러시아 전통복식의 디테일이나 공예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민간신앙적 차원에서 벽사의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의 가장자리 장식은 러시아 정교회 신비주의적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즐겨 사용하던 금자수 방식과 결합되어 한층 화려하게 표현되었다.³⁹⁾ 또한 봄, 태양의 사신으로 상징되는 계란에 다산을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을 그린 후 땅에 묻어 주술적 힘을 대지에 전달하고자 했던 민간신앙적 행위는 기독교 수용 이후 부활절 의미와 결합하였고, 이후 화려한 보석과 정교한 장식이 특징인 러시아 황실의 보석, 파베르제(Fabregè) 달걀로 거름담⁴⁰⁾으로써 제정 러시아의 화려함을 대표하였다.

2009년 샤넬의 Pre-Fall 컬렉션<그림 20>에 등장한 모피 트리밍의 카프탄형 코트에는 네크라인과 앞단, 소매와 도련을 따라 금색 씨퀸과 비즈가 자수되었고, 2012년 F/W 발망의 컬렉션<그림 21>은 화려한 색감의 브로케이드 소재, 꽃다발 문양, 격자무늬의 비즈와 메탈로 장식되어 러시아 파베르제 달걀을 연상시키며 이중신앙적 배경에서 비롯된 러시아 문화의 화려함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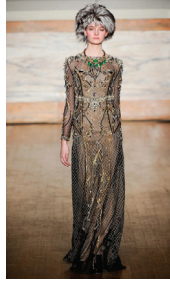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차용되어 러시아인 오프런스를 특징짓는 많은 요소들은 러시아의 민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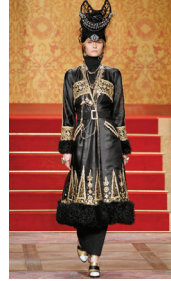
<그림 17>
발망,
2002 F/W Couture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18>
샤넬,
2009 Pre-Fall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19>
템퍼리 런던,
2012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0>
샤넬,
2009 Pre-Fall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1>
발망,
2012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앙과 러시아 정교,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융합과 혼성에 따른 러시아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대한 재현과 현대적 재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러시아인 아방가르드(Russian Avant-garde)

20세기 초 논리성과 효율성의 창조를 통해 새로운 사회 환경을 건설하고자 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기하학적 형태와 단순성에 대한 추구는 20세기 말, 크리스찬 디올의 하우스에서 극도의 장식적 디자인을 선보이던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에도 차용될 정도로 많은 패션디자이너에게 영감의 근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1세기 이후의 현대 패션에도 지속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2003년 F/W 피에로(Pierrot), 2005년 F/W 에르메스(Hermes) 컬렉션에서는 빨강, 검정, 하양의 기본 색채와 절제된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하여 러시아 구성주의 패션을 차용한 작품이 선보였다. 피에로의 디자인에서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서의 원, 삼각형과 함께 러시아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별을 사용하여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면<그림 22>, 에르메스의 디자인은 보다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특성을 차용하

였다<그림 23>. 가브리엘 콜란젤로(Gabriele Colangelo) 역시 2013 S/S 컬렉션에서 엄격한 기하학적 면분할과 극도로 제한된 색을 사용하던 아방가르드 화가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절대주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발표하였다<그림 24>.

한편, 구성주의 예술가들이 목적지향적 집단의 복으로 간주하며 기능적 작업복을 위해 제시한 오버롤 형태의 디자인이 기하학적 면분할과 단순한 색상과 함께 결합되어 러시아인 아방가르드를 표현하기도 한다. 2013년 F/W 펜디(Fendi)<그림 25>와 2013년 S/S 가브리엘 콜란젤로<그림 26> 컬렉션에서는 단순한 색상과 기하학적 색면 처리가 부각되는 상하가 연결된 오버롤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러시아인 아방가르드의 표현특성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 패션에서는 과거 러시아 혁명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추구하던 의복에서의 기하학적 형태, 단순한 색채 사용의 이념성과 기능에 대한 효율성을 배제한 채 외형만을 차용함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반영된 러시아인 아방가르드의 특성 내에는 새로운 미적 형태를 추구하는 디자이너의 미적 표현의 반영이나 패션 트렌드의 수용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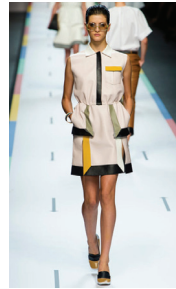
<그림 22>
피에로,
2003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3>
에르메스,
2005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4>
가브리엘 콜라젤로,
2013 S/S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5>
펜디,
2013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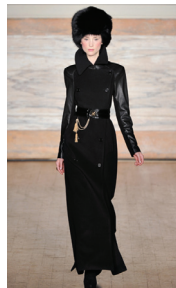
<그림 26>
가브리엘 콜라젤로,
2013 S/S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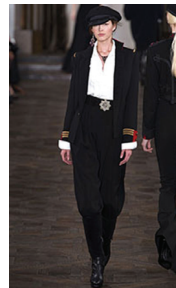
<그림 27>
에르메스,
2012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8>
코스튬 내셔널,
2005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9>
템퍼리 런던,
2012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30>
랄프 로렌,
2013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31>
코스튬 내셔널,
2007 F/W
(출처: [http://www.
style.com](http://www.style.com))

4. 러시아인 밀리터리(Russian Military)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들은 그들 자신이 군사적 양육과 교육을 받은 군인이었고, 귀족 역시 무관직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제복에 대한 숭배가 러시아 귀족의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⁴⁾ 이와 함께 지주와 귀족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황실의 군역에 종사하던 카자크인, 러시아 혁명 이후 1917년 창설된 붉은 군대는 외부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군사적 이미지로 각인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복식은 서구 디자이너들 사이에 러시아 군대를 상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현대 패션에서 러시아인 밀리터를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자유를 찾아 정착한 남부 러시아 스텝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항상 외적과 싸워야 했던 카자크인들은 16세기 이반 4세 이후부터 러시아 황실로부터 봉급을 받으며 군역에 종사하는 특수민족으로 발전하여 시베리아를 개척하거나 러시아 혁명 활동을 진압하는데 투입되기도 하였다. 이들이 착용한 험령한 바지와 부츠, 카프탄형 상의와 털모자인 파파카는 러시아 군복의 기초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2012년 F/W 에르메스<그림 27>와 2005년 F/W 코스튬 내셔널(Costume National) 컬렉션<그림 28>에 차용되었다.

붉은 군대가 착용하던 제복의 형태나 디테일 역시 러시아인 밀리터를 표현하는 주된 요소로서, 2012년 F/W 템퍼리 런던은 구조적 형태의 긴 코트

<표 2>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특성

유형	표현특성	표현방법	표현의지
러시아인 포클로어	동슬라브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복식 아이템과 장신구, 민속공예 디테일을 차용	· 루바시카, 사라판, 슈바 · 카자크인의 부츠, 허리끈 장식 · 코코쉬니크, 플라톡, 샤프카 · 붉은 색상, 꽃무늬	서정적, 보헤미안적인 동슬라브 민족의 판타지와 향수에 대한 동경
러시아인 오프런스	그리스 정교의 국교화에 따른 비잔틴 문화의 수용, 서구화 정책에 의한 서유럽 귀족문화의 도입으로 형성된 화려함, 고급스러움, 우아함의 조형요소를 차용	· 교회와 황실에서 착용되던 긴 코트 · 모피, 브로케이드, 다마스크, 새틴 · 금색 씨퀸, 유색 비즈 장식, 금색 자수 · 파베르제 달걀을 연상시키는 표면장식	고유문화와 타문화의 혼성에 따른 러시아 문화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러시아인 아방가르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작품에서 추구되던 기하학적 형태, 단순한 색채, 기능적 구성을 차용	· 삼각형, 원, 사각형의 기하학적 면분할 · 빨강, 검정, 하양의 단순한 색채조합 · 상하가 연결된 오버롤 형태의 디자인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념성이 배제된 순수한 미적 조형 창조 및 패션 트렌드의 수용
러시아인 밀리터리	러시아 변방에서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카자크인과 혁명 후 창설된 붉은 군대의 군복 디테일을 차용	· 카자크인의 험렁한 바지와 부츠 · 카프탄형 코트와 허리띠, 어깨띠 · 견장, 스탈린 칼라가 부착된 코트 · 파파카, 아스트라칸 모자 · 붉은 군대를 상징하는 빨간색	정치적 이데올로기 변화를 내포하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다중적 시각의 반영

와 허리띠, 파파카를 사용하여 스탈린 시대를 상징하는 러시아인 밀리터리를 표현하였고<그림 29>, 2013년 F/W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여유있는 카자크인의 바지와 견장이 부착된 재킷을 사용하여 러시아인 밀리터리의 과거와 근대적 이미지를 융합하고자 하였다<그림 30>. 또한 2007년 F/W 코스튬 내셔널은 견장과 아스트라칸 모자를 조화시킨 빨간 원피스 디자인으로 붉은 군대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였다<그림 31>.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러시아인 밀리터리의 표현특성에는 자유분방한 호전적 기질의 카자크인의 복식과 함께 근현대 러시아 혁명 및 강한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소비에트 붉은 군대의 제복 요소를 동시에 차용함으로써 러시아 역사에서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다중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한 의의가 엿보인다.

이상에서 고찰된 2000년대 현대 패션에 표현된 러시아풍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V. 결론

유럽과 아시아에 인접한 러시아는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공산국가 소련의 강한 이미지로 연상되기 쉬우나 동슬라브 민족의 보헤미안적 생활방식과 판타지적인 신화들, 푸시킨, 톨스토이, 샤갈의 작품에 담긴 서정성, 러시아 제정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와 비운의 아나스타샤, 1920년대 러시아 혁명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한 귀족과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다양성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으로 해체된 이후 21세기 경제부흥과 함께 세계적 관심이 러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역사와 복식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패션계에 미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을 통찰해보는 것이었다.

고대 러시아,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로 구분되어 살펴본 러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를 포

함하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형성된 러시아의 복식 문화에는 동슬라브 민족의 영향, 러시아 정교의 종교적 영향, 18세기 서구화 정책의 영향,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적 요소들을 반영한 현대 패션의 표현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현대 패션에 반영된 러시아풍의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러시아인 포클로어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계승된 동슬라브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아이템과 장신구, 공예적 디테일을 차용한 디자인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보헤미안적인 동슬라브 민족의 판타지와 향수에 대한 동경 및 서정적 표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러시아인 오프런스는 러시아 정교 및 서구화 정책에 따른 화려한 러시아 귀족 복식을 차용한 디자인에서 표현되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민간신앙과 러시아 정교의 이중신앙 체계,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융합과 혼성에 따른 러시아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대한 재현과 현대적 재해석의 표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러시아인 아방가르드는 혁명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나 의상디자이너에 의해 추구되던 기하학적 형태와 단순한 색채의 사용을 차용한 디자인에서 표현되고 있었으며, 현대 패션에서 그 이념성은 철저히 배제된 채 외형만이 차용된 점은 새로운 미적 형태를 추구하는 현대 패션디자이너의 순수한 미적 표현의지나 패션 트렌드의 수용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넷째, 러시아인 밀리터리스는 자유분방한 호전적 기질의 카자크와 근현대 러시아 혁명 및 강한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소비에트 붉은 군대의 제복요소를 차용한 디자인에서 표현되고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변화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다중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러시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복식의 특성은 현대 패션디자이너에게 풍부한 영감의 보고로 활용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적 요소를 주로 활용하는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 관한 심층적 연구, 또는 최근 활약이 돋보이는 러시아 패션디자이너의 작품 분석을 통해 러시아 패션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Which? (2013). Consumers in 2030: Forecasts and projection for life in 2030, Consumer Insight, 자료검색일 2014. 4. 30. <https://www.forumforthefuture.org/project/which-consumers-2030/overview>
- 2) 박윤정 (2009). 러시아 절대주의 예술의상 연구: 카시미르 말레비치의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7(6), pp.1083-1098.
- 3) 박윤정, 양숙희 (2005). 라리오노프와 곤차로바의 예술의상 연구: 광선주의와 러시아 발레를 중심으로, 복식, 55(7), pp.1-21.
- 4) 손호영, 간호섭 (201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61(10), pp.1-15.
- 5) 오선희 (2001). 20세기 초반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의 의상디자인 활동: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복식, 51(3), pp.59-73.
- 6) 한순자 (1996). 러시아 복식에 대한 연구, 복식, 26(-), pp.151-168.
- 7) 이다경 (2013). 소비에트 Red Dior의 패션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39.
- 8) 정연호 (2010). 슬라브 문화의 이해, 서울: 신아사, pp. 10-13.
- 9) Ascher, A. (2002). 처음 읽는 러시아 역사, 김하은, 신상돈 옮김 (2013). 서울: 아이비북, pp.38-39.
- 10) 정연호. 앞의 책, pp.22-31.
- 11) 카자크(Cossack): 몽골 타타르어로 자유로운 모험가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15세기 후반 킵차크칸국의 해체시기에 러시아 남부평원에서 자유롭게 사는 타타르인의 자유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루시인들 가운데서도 지주와 영주의 횡포와 탄압에 못 이겨 자유를 찾아 변방으로 도망치는 농민과 농로들이 이 집단에 가세하였고, 점차 루시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슬라브족 농민과 농노들이 이 자유

- 집단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카자크인들은 동슬라브인에 속하면서도 이반 4세 이후 황실의 군역에 주로 종사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특수민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위의 책, pp.94-95.
- 12) 위의 책, pp.22-31.
- 13) 위의 책, pp.34-37.
- 14) 김경목 (2006). 이야기 러시아사(개정판), 서울: 청아출판사, p.132.
- 15) 정연호. 앞의 책, pp.34-37.
- 16) 김경목. 앞의 책, p.302.
- 17) 이정희 (2001). 스탈린 문화혁명과 그 사회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한국슬라브학회지, 16(2), 2001, pp.269-296.
- 18) Yefimova, L., Aleshina, T. (2011). Russian Elegance: Country and City Fashion from the 15th to the Early 20th Century, London: Vivays Publishing, pp.11-15.
- 19)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2). History of Russian Costume from the Elev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NY: Metropolitan Museum of Art, p.14.
- 20) Ibid., pp.15-16.
- 21) Khromtchenko, E. (2009). Russian Style, NY: Assouline Publishing, pp.128-169.
- 22) 이다경. 앞의 논문, p.113.
- 23) Ascher, A. 앞의 책, pp.28-29.
- 24) Khromtchenko, E. op.cit., p.211.
- 25) Ibid., p.20.
- 26) Yefimova, L., Aleshina, T. op.cit., pp.20-21.
- 27) Ruance, C. (2002). Subjects into Citizens: The politics of clothing in imperial russia, in Parkins, W. (Eds.), Fashioning the Body Politic: Dress, Gender, Citizenship (p p.49-70). Oxford: Berg.
- 28) Yefimova, L., Aleshina, T. op. cit., pp.98.
- 29) Ruance, C. op.cit., p.52.
- 30) Ibid., pp.51-52.
- 31) Stern, R. (2004). Against Fashion: Clothing as art, 1850-1930, London: The MIT Press, pp.45-48.
- 32) 오선희, 앞의 논문, pp.59-73.
- 33) Khromtchenko, E. op.cit., p.61.
- 34) Stern R. op.cit., pp.45-48.
- 35) Khromtchenko, E. op.cit., p.104.
- 36) Ibid., p.133.
- 37) Evans, C., Frankel. S. (2008). The House of Viktor & Rolf, London: Merrell, p.88.
- 38) 이충신앙은 기독교의 외형 아래 민간 신앙적 믿음과 관습이 보존된 종교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이미 민간 신앙체계가 형성되어 있던 키예프-루스에서 강제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국가와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일반인뿐 아니라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충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황성우 (2001). 러시아 이충신앙 용어에 대한 재검토, 슬라브연구, 17(1), pp.52-75.
- 39) Yefimova, L., Aleshina, T. op.cit., p.11.
- 40) 홍석우 (2008).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속문화에 나타난 혼합적 종교성, 슬라브연구, 24(1), pp.138-162.
- 41) Lotman, Y. (1994). 러시아 문화에 대한 담론 1: 러시아 귀족의 일상생활과 전통, 김성일, 방일권 옮김 (2011). 파주: 나남, pp.55-57.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Moo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ung, Hyu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moo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Russian history and costume.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Russian history in terms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was examined in the three periods of Old Russia, Imperial Russia, and Soviet Russia, and it was found that Russian costume has strong influences from East Slavic culture, Russian Orthodox, the Sartorial Revolution by Peter the Great in the 18th century, and the ideology of Russian Revolu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since 2000 reflected those Russian moods, which are categorized as follows: Russian folklore was represented with fashion items and accessories that identified East Slavic ethnic culture such as rubashka, sarafan, and kokoshnik, etc.; Russian opulence was expressed with luxurious fabrics, jewels, and gold embroideries influenced by Russian religion and west European culture; Russian avant-garde borrowed the image of Russian constructivism through a combination of geometric shapes and simple colors; Russian military was represented using the elements of Cossack's or the Red Army's attire such as a papahka hat, kaftan coat, loose pants, boots, epaulet, or Stalin-collared jacket, etc. It was interpreted that these aesthetic characteristics implied the meanings of longing for the fantasy and nostalgia of East Slavic culture; representation of cultural abundance of Russia; different viewpoints on the change of Russian political ideology; and the designers' will of new aesthetic creation.

Key words: Fashion design, Russia, East-Slavic, Cossack, Soviet